

최근 經濟動向

李 摳 哲
 〈중소기협중앙회 기획조정실〉

一. 주요산업 동향

◇ 자동차

자동차 생산은 小型 및 大型승용차의 신모델 出市로 3月中에만 272천대 증가하여 이는 전월대비 23.5%,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한 것이다.

1/4분기 전체로는 年初 노조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한 633 천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1/4분기중 내수부진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일본차와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도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동월대비 17.8% 감소한 539 천대에 그쳐 在庫가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一部 업체의 조업단축과 출혈판매경쟁의 재현 등 업체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內需는 국내경기의 침체가 지속되어 1/4분기 전체로 보아 전년동기대비 20.7% 감소한 306천대에 그쳤다.

車種別로는 승용차의 경우 신모델이 出市된 소형 및 대형승용차와 SUVS(Sports Utility Vehicles) 등 경유사용차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형 및 輕型승용차가 지난 달에 이어 크게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3.5% 감소한 86천대에 그쳤다. 商用車

의 내수는 小型버스 및 트럭의 新車出市에 따른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한 34천대에 달하였다.

수출에 있어서는 누적된 在庫물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한 112천대에 이르렀으나 1/4분기 전체로는 13.7%감소한 233천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각 자동차생산 회사들도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누적 해소를 위해 일부 생산라인의 조업을 단축하거나 자동차판매의 할부금리 인하, 관리직 간부의 영업소 배치 등 판매력 강화를 위해 나름대로의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대우자동차는 조업단축보다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어 최근 GM社와의 상호 위탁 생산 등 선진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자동차
 (台, %)

	1996. 3월		1997. 3월		累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生 产	250,186	20.1	6.1	272,219	23.5 632,899 △9.9
・出 荷	236,409	20.2	5.5	231,822	22.7 △1.9 538,947 △17.8
(内 需)	131,813	17.6	0.4	119,810	10.2 △9.1 305,906 △20.7
(輸 出) ¹⁾	104,596	23.7	12.7	112,012	39.5 7.1 233,041 △13.7

註1) 자동차공업협회자료로 관세청 수출통계와는 차이가 있음에 주의

중에 있다.

◇ 전기·전자

3월중 전기·전자산업의 수출은 산업용전자의 수출 증가와 반도체 및 가정용전자의 수출감소가 전월에 이어 계속 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15.5% 감소한 3,28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용전자의 수출이 무선 통신器機와 Computer보조기억장치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한 766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가정용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중이 높은 영상기기, 음향기기의 수출감소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한 617백만달러에 머물렀다. 전자부품의 수출은 전자管, LCD(Liquid Crystal Display), PCB(Printed Circuit Board) 등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6.9% 감소하여 동기간중 26.6% 감소한 1,902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출감소율은 前月의 32.4%보다 6%포인트 가량 낮아짐으로써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4분기중 전자산업의 수출을 보면 산업용전자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하였음에도 반도체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1.0% 감소한데다 가정용전자도 동기간중 5.1%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8.1% 감소한 9,262억 달러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Color TV 수출은 지난 1/4분기중 감소한 반면, 수입은 29인치 이상의 대형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제품의 수입이 계속될 경우 국내기업의 성장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한편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는 삼성, 대우, LG, 현대, 등 전자 4社와 共同으로 현재 유

일하게 세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미국규격의 HDTV수신장치 프로토Type을 주문형 반도체(ASIC)化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는데, 이는 차세대TV시장을 이끌어 갈 HDTV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매우 의미가 큰것으로 전망된다.

◇ 철강

철강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속에서 3월중 조강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한 3,608천M/T으로서 월중 생산량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호조를 보였다.

포항제철이 한보철강의 가동부진 및 최근의 수요증가로 인한 열연강판의 공급부족과 4월로 예정된 포항 2高爐 보수공사에 따른 물량부족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가동률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轉爐제강부문의 조강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2,169천M/T에 달했다. 전기로제철부문도 강원산업의 中型形鋼工場의 본격적인 가동과 판매호조로 인한 업계의 가동률향상으로 전월대비 19.2% 증가한 1,439천M/T가 생산 되었다. 이는 한보철강이 정상가동되던 전년동월에 비해서도 0.7% 증가한 높은 생산실적이다.

내수시황은 97년초 이후 條鋼類를 중심으로 한 판매증가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 시황의 약세로 인해 냉연강판의 수요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條鋼類의 경우에도 일부 기초 토목공사용 형강류를 제외하고는 아직 현장의 실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수기에 대비한 비축용 구매와 4월 이후로 예상되는 추가 가격인상에 대비한 假需要가 주류를 이루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3월중 수출은 540백만달러로서 전년동월대비 8.7% 증가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수입은 562백만 달러로서 전년동월대비 23.2%가 감소하였다.

국제시세의 회복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평균 수출단가는 3월중 M/T당 555달러였는데, 이는 베트남에 대한 고가의 철구조물 수출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였던 2월을 제외하면 96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97년 1/4분기 철강재 무역수지적자는 31백만달러로서 전년동기의 669백만달러에比べ 크게 줄었다.

철 강
(千M/T, 百萬달러, %)

	1996. 3월		1997. 3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3,435	14.0	11.3	3,608	19.2	5.0
輸 出	497	△17.6	△17.6	540	△2.9	8.7
					10,099	3.2
					1,588	6.8

◇일반기계

3월중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 발전설비, 지하철 차량 등의 대규모 발주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94.4%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에서는 제조업의 발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운수업, 건설업 등 비제조업의 발주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4% 증가하였다. 1/4분기 국내 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하였다.

수출은 냉동공조기계, 농기계 등의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15.1~33.4%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세를 보였으며 1/4분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였다. 수입은 화학기계, 섬유기계, 운반하역기계 등의 부문에서 9.4%~41.4%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9.0% 감소한 1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1/4분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9% 감소한 4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기계부문의 무역수지적자는 전년동월대비 36.6% 감소한 74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4분기 무역수지적자는 수입감소로 전년동기에 비해 6억달러 축소된 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내 건설기계업계는 중·장기적인 세계화 전략의 일환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시장의 무역마찰, 시장통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건설과 건설 중장비 부품의 OEM수출 확대,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벨기에와 중국에 각각 年產 3,000대 규모와 年產 4,000대 규모의 굴삭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중공업은 금년안에 동남아시아에도 굴삭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동시에 미국 뉴저지주 스키드로더 공장의 생산을 2000년 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이며, 현대 중공업은 중국 江蘇省 상주에 年產 1천대 규모의 굴삭기 공장을 가동중이고 1~2년내에 미주 및 인도네시아에도 중장비 공장을 건설, 해외생산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2000년까지 해외생산량을 국내생산량의 35%까지 늘릴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편, 핵심부품의 기술확보 및 국산화율의 제고 없이는 해외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품의 표준화, 규격화추진 및 메인펌프, 주행모터, 컨트롤밸브 등 핵심부품의 조기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

최근 동남아지역의 석유화학제품 국제 가격은 歐美物量의 流入감소와 一部 국가의 수요호조를 바탕으로 금년 1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틸렌 거래가격은 3월에 전월대비 톤당40달러 상승한데 이어 4월에 와서도 30~40달러의 상승폭을 보여 톤당 650~670달러에 달하였다.

합성수지 등 유도품의 최근 가격도 5월부터 시작되는 일부 공장의 정기보수에 대비한 가수요와 선진국의 내수회복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3월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가동일수가 적었던 2월에 比해 生産과 出荷가 전반적으로 好調를 보였다. 生産은 금년의 시설확충과 전월에 比한 가동일수의 증가 등으로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9.9%, 10.8%의 신장세를 기록 하였다. 国내出荷도 定期補修에 대비 한 수요업체의 비축수요 증가와 관련 주요산업의 생산호조로 전월대비 4.0%, 전년동월대비 18.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品目別로는 합성수지의 出荷는 HDPE, PP, PS 등의 부진에도 不拘하고 LDPE, PVC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하였으며 合纖원료는 주요산업인 폴리에스터의 수출회복으로 TPA가 호조를 보여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23.9%, 23.8%의 급증세를 나타내었다. 合成高무의 경우에도 신규업체인 현대 석유화학의 배출확대로 큰 폭의 出荷伸張勢를 보였다.

수출은 내수출하의 호조로 여유물량이 줄어들어 3월중 실적은 전월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11.6%의 良好한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의 가격회복을 바탕으로 금액기준의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한편, 금년 1/4분기중의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설비확충으로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내수의 수출도 관련산업의 수요호

석유화학
(千M/T, %)

	1996. 3월		1997. 3월		累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產	854	2.3	12.5	988	9.9	15.7	2,866	10.8
· 出 荷	798	2.6	1.3	937	4.0	17.4	2,768	16.0
(内 需)	497	7.1	0.0	601	6.7	20.9	1,753	18.6
(輸 出)	301	△4.1	3.4	336	△0.6	11.6	1,015	11.7

조와 가격회복으로 活氣를 보여 전반적으로 良好한 業況을 보였다.

◇ 섬유

3월중 국내섬유업종은 섬유사와 편직물을 중심으로 한 직물류의 수출경기 호조로 전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였다. 따라서 3월중 섬유수출도 화섬F絲 및 편직물류의 지속적인 수출호황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한 1,550백만달러를 기록하여 1/4분기 까지의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4,125백만달러에 달하였다.

품목별로는 섬유원료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한 81백만달러, 섬유사류는 나이론 및 폴리에스터 F絲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9.2% 증가한 16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직물류는 편직물류의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한 930백만달러를 달성하여 수출증가세를 주도하였다. 반면 편직제품류는 엔氐현상과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해외바이어들의 구매유보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한 372백만달러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폴리에스터직물과 화섬F絲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 EU,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日本, 홍콩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輸入은 섬유원료, 섬유사 등 원자재 부문의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섬유류의 수입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한 150백만달러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1/4분기까지의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1,257백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현지법인이 많이 진출한 中國으로부터의 中·低價의류 수입과 日本, 이태리 등으로부터의 고급 사치성 의류수입 급증으로 전월에 다소 둔화되

었던 의류수입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효성T&C는 96년말 울산공장에 생산능력 350톤/월 규모의 NSF(Nylon Staple Fiber)제조공장을 준공, 가동한데 이어 9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의 시설을 700톤/월 규모로 증설키로 하였다.

현재 국내 NSF원사 수입규모는 U.S \$15 백만달러로 국산품의 품질경쟁력이 뛰어나 수입원사의 국산대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등 선진국의 NSF 생산경쟁력 약화로 일본 화섬업체로부터 그간 NSF원사를 공급받아 왔던 동남아市場에서도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

人工皮革用 부직포, 심지 등의 원료에 사용되는 NSF는 그 동안 국내수요의 40%를 일본과 유럽 등지로 부터 수입해 왔으며 日本產의 경우 人工皮革用 부직포원료가 대부분이다.

◇ 비금속광물

3월중 시멘트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한 4,865천M/T, 内需는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한 5,625천M/T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전년의 시설능력 증가와 공공건설의 증가로 성수기의 시작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9.5%, 전월대비 46.6% 증가하였으며, 내수도 公共工事의 발주 등으로 건설공사가 늘어 나면서 전년동월대비 13.1%, 전월대비 91.5% 증가하였다.

내수증가에 따라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7% 감소한 75천M/T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19.1% 증가한 207천M/T을 기록하였다. 1/4분기중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11,858천M/T을, 내수는 10.3% 증가한 11,553천M/T을 각각 기록하

였으며, 수출은 27.4% 감소한 196천M/T수입은 26.2% 감소한 362천M/T을 기록하였다.

성신양회(주)는 충북 부강에 年產 1,800천 M/T규모의 Slag시멘트공장을 준공하였는데, Slag시멘트는 제광소의 용광로에서 나오는 찌꺼기(슬래그)와 석회석을 혼합하여 만드는 시멘트로 일반시멘트에 比하여 防水性과 耐久性이 좋아 교량, 항만, 댐, 건설등에 사용된다. 이 공장의 준공으로 국내 슬래그시멘트 생산능력은 年產 8,950천M/T으로 증가하였으며, 슬래그시멘트공장이 포항, 광양만 등에 위치함으로써 그간 수도권과 中部지역에서 겪어왔던 슬래그시멘트 공급애로가 다소 해소되게 되었다.

한편, 동양시멘트는 캄보디아에 年產 820 천M/T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合作 건설할 계획인데 이 공장은 東洋그룹이 85%의 지분을 갖고 現地會社와 合作하여 2억달러를 투자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생산개시할 예정에 있다.

또한 板유리의 경우 건축공사가 활발해지면서 3월중 내수는 1,930천 C/S로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生產은 2,058천 C/S로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였다.

시 멘 트

(千M/T, %)

	1996. 3월		1997. 3월		累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產	4,441	48.2	△6.1	4,865	46.6	9.5	11,858	9.7
· 出 荷	5,069	81.1	4.5	5,700	91.0	12.4	11,749	93.6
(内 需)	4,974	85.9	3.8	5,625	91.5	13.1	11,553	10.3
(輸 出)	95	△23.4	63.8	75	56.3	△21.1	196	△27.4

생산업체가 保有하고 있는 在庫는 2,309천 C/S로 전년동월대비 43.7% 감소 하였으며, 1/4분기중 생산은 전년동기와 같은 5,990천 C/S를,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5,781천C/S를 각각 기록하였다.

◇조선

3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탱커수주 호조의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274.5% 증가한 10척 543천G/T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1/4분기까지 총受注量도 1,674천 G/T으로 전년동기대비 166.7%를 증가하여 조선시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1/4분기까지 선종별 수주량을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탱커가 1,093천 G/T으로 전체 수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동기의 59.2%에서 65.3%로 증가한 반면, 벌크캐리어(Bulk Carrier)와 컨테이너船은 각각 213천G/T, 170천G/T으로서 전체수주량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전년동기의 14.4%, 22.9%에서 12.7%, 10.2%로 각각 감소하였다.

3월중 建造실적은 지난 연말의 건조량 급증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전년동월대비 42.4% 감소한 13척 545천G/T에 그쳤으며, 1/4분기중 총건조실적은 30척 1,314천G/T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8.7% 감소하였다.

한편 3월과 현재 수주잔량은 금월중 수주량과 건조량의 균형으로 273척 13,462천 G/T을 기록하여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금년 1/4분기중의 수주호조로 4.6% 증가하였다.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선박의 핵심기자재

의 하나로 선박의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개발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적은 연료사용으로 고속회전이 가능한 터빈 블레이드개발에 성공하여 양산체제에 돌입하였는데, 터빈 블레이드는 그간 해외로부터 전량수입에 의존해 오던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으로 同社가 國產化에 성공함으로써 약 1천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해 운

3月中 乾貨物市況은 신규선복량의 증가에도 不拘하고 各國의 PSC(Port State Control : 항만국통제)실시 등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강화로 신규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화물종합지수(MRI)가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254.3을 기록하여 3개월간의 하락세를 끝낸 셈이다. 그러나 1/4분기까지 건화물시황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공급파잉으로 운임 수준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3월중 탱커운임지수(WS)는 주요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 일본 등 극동지역의 수요증가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대기선박량이 감소함에 따라 운임이 상승하여 전월의 61.5에서 62.6으로 1.1포인트 상승하였으며, 1/4분기까지의 탱커운임지수는 극동港 대형유조선의 선복수요증가로 60이상의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해운업계는 승선가용인력에 대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건비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국인선원의 혼승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6년말 867명이었던 외국인선원은 금년 3月에는 977명으로 12.7%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국적선사도 24개社에서 27개社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선
(千G/T, %)

	1996. 3월		1997. 3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受 注	145	△42.0	△70.7	543	△39.7	274.5
·建 造	947	115.2	211.5	545	14.5	△42.4
·受注殘量	12,868	△5.7	0.6	13,462	0.0	4.6

二. 대외거래

◇ 수출

4월중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13.1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2%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외의 수출이 100억7천만달러로 10.5% 증가함에 따라 전체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한 113억8천만달러에 이르러 작년 6월이후 처음으로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3月中 品目別 수출에 있어서는 경공업제품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중화학공업 제품도 감소세가 다소 진정되어 전년동월대비 2.8% 줄어든 113억 6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중화학공업제품은 기계류, 금속제품, 자동차, 화공품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나 전자제품 등이 계속 부진하여 감소세가 소폭 줄어 들었다.

경공업제품은 의류, 타이어 등의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귀금속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직물류, 종이류 등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 수 입

4월중 수입은 전체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원유 등 원자재의 수입증가율이 전월에比べ 크게 둔화 되었고 자본재 역시 설비투자의 감소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데다 소비재 또한 곡물 등의 수입감소로 증가율이 낮아진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수입은 전년동월의 126.7억달러에서 1.6% 증가한 128.8억달러에 머물렀다. 한편, 3月中 品目別 수입은 원자재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소비재수입도 증가로 전환하여 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한 1,321억달러를 기록하여 전월의 0.1%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자본재는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

品 目 別 輸 出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3		96. 1~3		97. 2		97. 3p		97. 1~3p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食料 및 消費財	2.8	13.3	7.1	10.7	1.9	△9.3	2.7	△2.7	6.9	△2.3
原 料 및 燃 科	4.4	2.7	12.1	16.3	6.3	65.7	7.3	65.3	19.7	62.8
輕 工 業 製 品	26.8	5.5	72.3	10.3	22.8	△1.6	28.3	5.6	74.2	2.7
纖 維 類	14.0	△7.7	37.7	△4.3	12.1	1.5	14.8	6.1	39.2	3.8
신 발 類	0.8	△27.3	2.3	△27.3	0.5	△23.7	0.6	△23.6	1.7	△24.7
旅 行 用 具	0.5	△17.9	1.5	△13.5	0.4	△25.1	0.4	△22.3	1.2	△20.7
重化學工業製品	82.9	22.2	223.5	24.5	62.6	△10.3	75.3	△9.1	196.8	△12.0
化 工 品	6.5	△4.8	18.3	3.0	6.4	6.1	6.9	6.3	19.3	5.3
金 屬 製 品	6.2	△26.0	17.7	△17.7	6.8	23.1	7.1	16.1	20.4	15.3
機 械 類	13.1	22.0	35.3	24.4	11.4	5.5	15.1	15.2	38.1	7.9
電 子 製 品	23.2	19.9	67.4	29.9	17.1	△19.1	19.5	△15.7	56.1	△16.7
自 動 車	9.6	19.0	25.2	24.1	7.4	△7.2	10.6	11.0	22.4	△11.1
船 舶	9.1	285.8	15.2	87.6	3.0	△23.7	3.9	△57.6	8.3	△45.8
統 計	116.9	16.9	315.0	20.3	93.6	△5.3	113.6	△2.8	297.5	△5.5

品目別輸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3		96. 1~3		97. 2		97. 3p		97. 1~3p	
	金額	増減率	金額	増減率	金額	増減率	金額	増減率	金額	増減率
食料 및 消費財	13.3	18.8	38.1	25.1	12.0	△1.2	13.8	3.6	39.2	2.8
原料 및 燃料	58.5	1.3	185.0	19.0	63.7	2.1	69.6	19.0	201.3	8.8
原 油	6.9	△34.0	31.3	15.1	17.2	31.8	17.6	155.3	52.7	68.4
輕工業原料	5.5	△4.0	15.7	3.8	4.1	△14.5	4.7	△15.4	13.7	△12.5
化學製品	7.2	△2.1	20.8	8.9	6.6	0.5	7.8	7.1	21.4	3.0
鐵 鋼 材	6.2	41.6	18.3	48.7	4.4	△15.7	4.6	△26.0	13.5	△26.2
資 本 財	49.5	3.9	133.6	11.9	39.3	△2.5	48.7	△1.6	131.9	△1.3
機 械 類	22.0	0.3	57.1	8.8	15.4	△11.8	18.1	△17.8	50.9	△10.9
電氣·電子	18.3	13.2	49.5	15.7	17.1	12.3	20.3	10.8	56.2	13.6
輸送裝備	3.1	△17.1	11.4	18.5	1.9	△35.0	4.4	43.4	8.3	△27.0
內 需 用	83.5	5.7	204.1	18.1	76.1	0.0	89.1	6.7	249.2	3.4
輸 出 用	37.8	0.5	115.7	14.3	38.9	0.5	43.0	13.7	123.2	6.5
總 計	121.4	4.0	356.7	16.8	115.0	0.1	132.1	8.9	372.3	4.4

투자둔화로 기계류수입이 계속 감소 하였으며, 그간 증가세를 보이던 정밀기기도 감소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원자재는 원유가 유가상승 및 국내 석유정제시설 확충으로 도입액이 늘어난 데다 96년 3월 할당관세 폐지로 同月의 원유도입이 급격히 줄어든데 따른 反作用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재는 곡물수입의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의류, 화장품 등 비내구소비재와 가정용전자 등 내구소비재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국제수지

3월중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무역외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무역수지가 전월에 比해 다소 개선되어 적자가 전월의 △25.0억달러보다 줄어든 22억7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原油 등, 원자재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계류와 자동차를 中心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월보다 다소 개선된 14.0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무역외수지는 투자수익지급 등 무역외 지급이 증가하여 적자가 전월의 5.9억달러보다 늘어난 8.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移轉收支는 7천만달러로 전월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3월중 자본수지는 27.3억달러의 도입초과를 보여 순도입규모가 전월의 11.7억달러보

국제수지

(억달러)

	96. 3	96.1~3	97. 2	97. 3p	97.1~3p
經 常 收 支	△9.4	△46.4	△25.0	△22.7	△79.4
貿 易	△1.7	△25.5	△18.3	△14.0	△55.7
貿 易 外	△6.8	△19.3	△5.9	△8.1	△21.3
移 轉	△0.9	△1.6	△0.8	△0.7	△2.4
長期資本收支	6.0	13.0	6.5	16.4	29.1
短期資本收支	11.9	33.3	5.1	10.9	17.0
綜合 收 支	8.5	4.4	△20.3	1.8	△37.7

다는 크게 증가하였다.

자본재도입은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순상환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외화증권발행, 무역관련신용 및 종합금융사의 단기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전월의 18.5억달러 보다 늘어난 27.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본流出은 해외증권투자가 순회수로 반전

되고 민간외화예금도 감소를 지속함에 따라 전월의 6.9억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0.3억달러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3월중 종합지수는 자본도입증가 등으로 1.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월의 20.3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反轉되었다.



강도판정은 3개의 평균치로